

만주국의 검열을 우회하는 저항적 글쓰기

—현경준의 장편소설 『도라오는 人生』의 경우

중앙민족대학 오상순

1. 머리글

지금까지 작가 현경준이나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편인데 그 중에서 『도라오는 人生』¹은 2002년에야 세상에 공개되었기에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²

『도라오는 人生』은 작가가 위만주국 아편총국의 위탁을 받고³ 「流氓」을 전편(前篇)으로 하고 그것을 수정, 확대하여 『도라오는 人生』이란 표제로 바꾸어 『滿鮮日報』에 총 94회로 연재⁴한 장편소설이다.

현경준의 중편소설 「流氓」과 장편소설 『도라오는 人生』, 중편소설 「마음의 琴線」은 모두 위만주국이 내세운 ‘아편금연’이란 국책을 소재로 하였기에 찬반 양극으로 평가가 엇갈리며 논의가 많은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도라오는 人生』은 국책문학 또는 금연문예로 친일성향이 가장 짙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라오는 人生』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명백한것은 이 세 작품(「유맹」, 『도라오는 人生』, 「마음의 琴線」-인용자 주)이 국책에 부응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단편? 장편? 중편으로 탈바꿈한 이 작품의 장편 『도라오는 人生』에 그러한 색채가 보다 농후하다.⁵

(『도라오는 人生』에서--인용자 주) 명우는 완전히 소생되어 이 부락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순녀와 결혼을 하고 어머니를 부락에 모셔온다. 뿐만 아니라 이 부락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된다. 그리고 인구가 소생을 거부하다가 작품의 결미에 와서는 끝내 소생한다. 전반 작품은 명랑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¹ 2002년,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 편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9 소설집 현경준』(흑룡강민족출판사)에 의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다.

² 장춘식의 박사학위논문 《日帝强占期 在中朝鮮人小説研究》(전북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3), 김장선의 《僞滿洲國時期 조선인문학과 중국인문학의 비교연구》(도서출판 역락, 2004), 리광일의 <현경준의 소설문학에 대한 이해>(『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9, 현경준』, 보고서, 2006)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

³ 『마음의 琴線』 서(序)에서 “작자는 多年 그들의生活에 關心을 가지고 機會만 있으면 한번 붓을 들어보려고 하던 中 마침 再昨年 滿洲國政府의 委囑을 받고 오랫동안 이 宿願이든 願을 비로소 滿鮮日報紙上을 通하여 풀게 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⁴ 지금 찾아볼 수 있는것은 23--94회분(1941.11.1-1942.3.3)이다. 《『滿鮮日報』文學關係記事索引(1030.12-1442.10)》, 大村益夫, 李相範 編. 1--22, 32, 37, 43, 52, 59, 63, 74, 79, 80, 84 회가 탈락되었다.

⁵ 최삼룡, <재만조선인문학에서의 친일과 친일성향 연구>, 16 쪽.

주요한 색채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위만주국의 리념에
영합한 친일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⁶

장춘식은 『도라오는 人生』의 늘어난 부분은 상당히 밝고 긍정적인 묘사로
일관되며 또 새로운 희망마저 느껴진다는 사실, 이 작품에서는 보도소장의
인간성을 표현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정부의 주도로
집중부락에 다른 이주민 마을 전체를 입식시킨다는 것, 관리들의 태도 또한 너무
인정미가 넘치게 그렸다는 것 등으로 “작가의 입지나 입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며 “현경준의 소설에 이처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했을 것”이며
“단순히 작가로서의 생존을 위한 현실과의 타협이나 순응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정체성 인식 자체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⁷

소설 『도라오는 人生』은 표층구조와 심층구조로 이루어진, 그 구성이
비교적 복잡한 소설로서 그 의미 또한 다의성을 띠고 있으며 『선구시대』와는
달리 우회적이지만 역시 현실제재로 민족정착사의 한 측면을 다룬 사실주의적인
장편소설이라고 본다. ...

소설 『도라오는 人生』의 표층구조에서 보여지는 친일경향은 바로 이런 피식민
민족문학의 역사적 제한성의 산물이라 하겠다. 이런 역사적 제한성은 응당
지적되어야 하며 일정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여하튼 소설 『도라오는 人生』에서 보여준 이중구조는 피식민 민족문학의 한
특징의 표현이라 볼 수 있으며 작가 현경준은 민족현실생존상황의 진실한 반영을
집요하게 추구한, 어느 정도 민족저항의식을 갖고 있는 민족작가라고 평가하게
된다.⁸

이렇게 현경준의 『도라오는 人生』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국책문학 또는
친일문학으로 평가하는 경향이다. 본 논문은 작품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작가의 의식성향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려 한다.

2. 표면 구조와 심층 구조에서 나타나는 이중의미

현경준의 장편소설 『도라오는 人生』은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로 이루어진,
그 구성이 비교적 복잡한 소설”로서 플롯·대화·심리묘사·서술 등 다방면에서 다층
구조를 이루면서 주제의 다의성·상징성을 나타내는 작품이다.

일제는 저들의 침략행위와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위만주국
건국선언에서 “왕도락토”, “오족협화”를 건국이념으로 내세우고 이른바 인재
재활 용을 위한 “아편금연”을 국책으로 정하고 이를 대외로 크게 홍보하는 한편

⁶ 리광일, <현경준의 소설문학에 대한 리해>,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9 현경준』 보고서, 2006,
26 쪽.

⁷ 장춘식, 《日帝强占期 在中朝鮮人小説研究》(전북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3), 140 쪽.

⁸ 김장선, 《僞滿洲國時期 朝鮮인문학과 중국인문학의 비교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4,
171-172 쪽.

실제로는 “아편법”, “아편법 실시령” 등을 반포하여 아편전매권을 장악하고 아편 재배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등 양면수법을 썼다. 일제는 아편전매를 통하여 경제적 략탈을 감행하는 동시에 아편중독으로 동북민중의 반항의지 내지 전체적인 국력을 약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36 년 현재 위만주국의 아편중독자와 마약중독자 수는 111 만명으로 위만주국 총 인구의 3.4%를 차지하였고 매년 아편중독자는 평균 15%, 약 16 만 명씩 증가하여 1945 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만주에서 아편중독자는 최소 254 만 명이나 되었다.⁹ 한편 일제는 재만조선인을 비롯하여 동북민중들과 항일유격대와의 접촉을 막고 효과적인 사상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갑법”(保甲法), “치안유지법”, “집단부락” 등 일련의 식민정책의 실시하였다. 한편 일제는 아편중독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康生院”을 설치하여 아편중독자를 수용하였는데 이는 중독자를 치료하기 보다는 아편을 미끼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¹⁰하는 한편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도라오는 人生』은 바로 당시의 이러한 사회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위만주국이 내세운 아편금연 국책을 소재로 타락한 인간들의 개심문제를 다루고 있다.

표면 구조에서 볼 때 이 소설에서 “명우는 완전히 소생되어 이 부락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순녀와 결혼을 하고 어머니를 부락에 모셔온다. 뿐만 아니라 이 부락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된다. 그리고 인규가 소생을 거부하다가 작품의 결미에 와서는 끝내 소생한다. 전반 작품은 명랑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주요한 색채로 하고 있다.” 때문에 표면구조에서는 국책문학 또는 친일문학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심층구조에서 보면 위만주국 당국이 인재재활용을 위해 내세운 아편금연운동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작가가 아편금연 소재를 이용하여 위만주국의 “왕도락토”, “아편금연”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 이 소설의 주인공들인 명우, 인규, 규선이, 보도소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의식성향을 살펴보려 한다.

1) 소생한 명우의 이중 의미지

소설에서 명우는 유일하게 완전히 소생한 인물인데 명우의 성격발전은 소설의 심층 구조를 이루면서 이중의미를 나타낸다.

『도라오는 人生』에서 명우는 「流氓」의 명우와는 다른 모습이다. 「流氓」에서는 아들이 개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어머니 때문에 결말에 가서 개심을 결심하지만 『도라오는 人生』에서는 개심후 민족과 사회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사색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일생을 “일허진 세월”을 되찾는데 바칠 것을 다짐하는 민족주의자로 변신했음을 볼 수 있다.

“鄉愁의 노래”(3)에서 명우는 인규에게 개심을 권유하면서 “한 여자 때문에 타락의 구덩에 떠러진” 것이 “얼마나 어리석구부꾸러운 일이나”고 반성한다.

한사람의 소생은 국가적으로 보아도 그러쿠 사회적으로 보아도그러쿠결코 일개인의 소생뿐만아니다. 연애라는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다.

나는너두 아다시피 일즈기한여자 때문에 타락의 구덩에 떠러진일이있다

⁹齊福霖, 《偽滿洲國史話》, 84 쪽.

¹⁰季琨, 《日帝強占期 間島小説研究》,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84-85 쪽.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나? 더구나 우리는 지식인이다. 국가나 사회는 우리들을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나보다 네편이 오히려 잘 알고있을것이 아니냐? 왜 과거에만사로잡혀서 암담하게 지나자는것이나?...

너와 나와 규선이는 똑가치 지식인이구 이상을 품고 매진하던자다 (도:694)

위의 명우의 말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이중의미를 담고 있다 할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너와 나와 규선이는 똑가치 지식인이구 이상을 품고 매진하던자다”이다.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국가”나 “사회”는 결코 위만주국이 아닐 것이다. 위만주국이란 허울을 이용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나 민족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한 여자 때문에 타락에 빠져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나고 자성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 또한 우리 민족 타락한 지식인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경종에 다름 아니라 본다.

이렇게 작성한 명우는 규선이, 인규 등을 개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며 불쌍한 마을 아이들을 위하여 혼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칠 뿐 아니라 야학 일까지 돌보면서 과로한 탓으로 몸져눕고 만다.

아래에 규선이, 인규를 소생시키기 위한 명우의 대화와 심리묘사를 몇 단락 예들어 보겠다.

“... 인생이란것은 한번어둠의구렁텅에떨어지면다시는영영 솟아날수업는것인가? 아널세 나는밧네 꺾게밧네열번을떨어졌대두 열한번째 우리의의기만있다면 얼마던지솟아날수가있다구생각하네 그러찬흔가?규선이자네는 아직얼마던지 솟아날수가있다구 나는꺾게밧네”(도:밧과어둠, 645, 646)

이는 규선에게 개심을 설득하면서 한 명우의 말이다. 정치운동가였던 규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지금은 망국이란 “어둠의 구렁텅에 떨어졌다지만” 의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솟아날 수 있다는 신념을 은유적으로 말했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슬픈 傳說”(3)에서 명우의 심리활동의 한 장면이다. 앞에서 명우는 연애에 실패하고 아편을 피우게 된 지식인에 불과하며 한 조각의 양심의 잔편이 남아있는 인간 명우였다면 “밧과어둠”, “슬픈傳說”에 와서는 오히려 규선이보다 훨씬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민족주의자 또는 선각자로 부각되고 있다.

일허진 세월!
얼마나 슬픈 말인가?
만약에 지나간 그시절에 흘러버린 그세월을 다시금 차출수가 있다면 규선의 소생은조금도 문제삼을것이업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한일일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일허진 세월을 다시 찾는다는것은 과거를 현재로 역행식히는것이 아닌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만은 그러한 절대 불가능한일을 규선에게 잊서서만은 감행식혀주고 십다
과거를 역행식혀주고십다
일허진 세월을 다시금차져주고 십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다시금 옛날의정열을 일으켜서 날뛰게 하여주고십다

그런데 만약 그러자면 그에 대한 방법은 어떠한 것일까?

... 방법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다

방법이 업다드라도 이것은 기필코 감행해야 한다. (도: 슬픈전설, 653~654)

규선은 정치운동을 하다가 타락된 인간이며 여기서 정치운동이란 독립운동 내지 반일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선이 말하는 “일허진 세월”이란 곧 망국노로 전락되기 전의 그 세월을 가리킬 것이다. 그렇다면 규선의 “일허진 세월을 다시금 차져주고 십다”고 하면서 “방법이 업다드라도 이것은 기필코 감행해야 한다”는 명우의 태도는 곧 일제를 몰아내고 민족독립 내지 국권회복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로 이해할 수 있다.

명우는 규선을 향해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줄을 아네 허지만 일생을 희생해서라도 해볼 작정이네 군의 일허진 세월을 도루차져 줄 것을 여기에서 굳게 맹서하네”(도:654) 하고 “맞치 불을 내뿜듯이 단검을 풍기며 힘스레 말한다.”

역사란 전부가 슬픈 전설이 아닌가? 장엄하다는 역사도 위대하다는 역사도 모두가 슬픈전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새로운 전설을 나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낫느냐? 무의식적으로 낫느냐? 즉 다시 말하면 능동적이나? 피동적이나? 하는 것 이라고 생각네...

우리들의 과거에 잊어서는 너무도 피동적이었대구 나는 절실히 생각네 피동적이었기 때문에 그에서 비저진 슬픈전설은 필연적으로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이었대구 생각하네... 더구나 자네는 정치운동가가 아니었는가? 이상주의 자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주의는 무엇때문이며 그운동은 누구때문 이었 든가? 내일개인의 안일이나 사욕을 채우림이 아니었다면 과도기의 거세인물결에 잊어서도 확호한 신념과 냉철한 비판력을 왜 잃는단 말인가? 모두가 피동적이었던 탓이 아닌가? 그 어리석었던 피동적시대를 게을르게 회상하며 자아를 망각하고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다는건 이얼마나 어리석은 수작인가? 진실로 자네의 일허진 세월을 다시금 차져야하며 나는 내 일생을 바쳐서라도 잊는 힘을 죄다 썩을 적정이네. (도:654)

여기서도 명우는 망국노로 전락된 민족의 비운은 너무나도 피동적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슬픈 전설이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으며 일제의 탄압이 가심해지자 확고한 신념과 냉철한 비판력을 잃고 “그 어리석었던 피동적시대를 게을르게 회상하며” “자아를 망각하고” 타락의 심연속으로만 빠져들어가는 이른바 정치운동가나 이상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일허진 세월을 다시금 찾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라도 그 잃어버린 과거를 찾겠다고 결의를 다진다. 명우의 말 전체도 그러하거니와 밑줄 친 부분은 더욱 이중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슬픈전설(11)도 명우의 사색으로 되어 있다.

옛날을 그려보려고 먹은 것과 옛날을 이즈려고 먹는 것... 두말할 것 업시 그것은 성격의 파탄에서 되어서 온 것이다. 과거를 그려보기 위함이란 성격파탄자의 한 구실이다. 소장의 설교도 친우의 충고도 아모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파탄된 성격--공허해진 그맘을 채워줄 “꿈”이 있어야 한다.... 인규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격의 파탄자에게는 다시금 옛날의 그꿈을 돌려주어야 한다. ... 하늘에 별은

팔수가업고 공중에 신기루는 잡을수가 업다지만 옛날의 꿈은 다시금 돌려올수가 있다. 부질업는 설교보다도 충고보다도 모든 것의 해결점은 이 옛날의꿈을 찾고 못찾는데 달려잇는것이다. (두고보자 나는 너와 규선에게만은 어쩌케해서던지 옛날의 그‘꿈’을 다시 돌려줄것이다) (도:667)

명우의 사색으로 된 위의 심리묘사 역시 은유성과 상징성을 띠면서 다의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어쩌케해서던지 옛날의 그‘꿈’을 다시 돌려줄것이다” 라는 것은 잃어진 조국을 되찾고야말겠다는 은유적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규선이나 인규 등 우리 민족 지식인들의 타락은 모두 성격 파탄에서 기인된 것이고 그것은 “옛날의 꿈”--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그들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다시금 옛날의 그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위의 예문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첫째, 명우는 위만주국의 국책에 순응한 친일적 인간이 아니라 민족애와 민족의지와 굳은 신념을 가진 민족주의자라는 것, 그가 학교 일과 야학, 그리고 규선이, 인규 등을 개심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결코 위만주국의 국책에 따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위하여서라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작품에서 명우는 작가의식의 대변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규선이, 인규를 설득하면서 한 명우의 입장연설과 내심독백으로 된 이성적인 판단과 비판은 그대로 작가의식 성향의 우회적인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인공 명우의 말과 사색을 빌어 작가의 강한 이념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이 상당히 민족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을 무엇때문에 개심한 명우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일제의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편이면서 명우의 개심은 역으로 위만주국을 부정하고 이에 저항하며 민족의지를 고취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기 위한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만주국의 인재 재활용을 위한 아편금연운동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2) 규선이 형상의 상징적 이미지

이 소설에서 규선은 “한때는 정치운동의 선봉에 나서서 불타는 정열로 날뛰었다는” 정치운동가, “과거의꿈”을 그리기 위해 아편중독자가 되어 “지금도 옛날의 그꿈을 잇을수가 없”어 기회만 있으면 아편흡연과 탈주를 거듭하면서 개심을 완강히 거부하는 아편중독자로 그려지고 있다.

규선은 명우와의 대화에서 “이놈에 세상 한번 벌컥 뒤집어지는 법은 없나”(도:618)고 절규하며 “이 망할놈의 세상이뒤집퍼지는것”이 “한번은 잇으련만”, “한번 그런걸 보구 죽었으면 한이 없을것 갓트네”, “두번두 실다 단 한번이 라두”(도:619)하고 기대한다.

규선은 명우에게 “두번다시 오지못할운명이길래 나는울지도안코 절믄날을 보냈”지만 “현실은 너머도어둡다 나는 까딱하면 질식할것갓타 견딜수가업다 내눈압폐는 어둠의거리를흘러가는 장렬(葬列)박게 안보인다”(도:619)고 하면서 위만주국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부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 장 “슬픈傳說”(1)은 구류소로 떠나는 규선이와 그를 바래주는 명우와의 대화로 구성되었는데 소생을 권유하는 명우, 그리고 소생한 명우에 대한 태도는 너무도 부정적이다.

모든것은 부질없는 작란이구 헛즐일세 나는 세상의 존재까지 부인하는놈일세.
나안테서 조금이라도 인간성을 차져보겠다는것은 마치 나무꼭대기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려는것과도 마찬가지로네

... 자네와의 우정두인제는 한傳說에 불과한것이 되구말지 안헛는가?

... 자네는 어젯날까지는 우리들의 부류에속한자였지만 오늘부터는 완전히 부류를
달리한-다시말하면 훌륭히 소생된 인간이 아닌가? ... 그러므로 지난날의 자네와
나와의 우정이란것은 지금에 와서는 기억에도 히미한 한가지 전설이
되구말엇다는것일세.

... 옛날의 길이라구? 절대안될말이다 세월은다흘러버렸다 명우 자네는 내일허진
세월을 다시금차저다 줄수가 잇는가?(도:651~652)

자기는 “세상의 존재까지 부인하는놈”이기에 자기에게 소생을 권유하는 것은 “나무꼭대기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려는것과도” 같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비난하면서 “오늘부터는 완전히부류를달리한” 명우와의 우정도 이젠 傳說에 불과하다고 못을 박아 말한다. 보도소에서의 개심은 곧 현실체제에의 순응 내지 민족의지의 변질을 의미하기에 규선은 현실체제에 대한 부정과 저항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초지를 굽히지 않는다. 위만주국의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의 순응을 거부하는 작가 태도의 다름 아니라 본다. 보도소에서의 소생은 곧 위만주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뜻 하기에 위만주국을 위해 일하기 보다 오히려 타락해 있는 것이 더 낳을 것이란 판단에서 행해진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소설에서 끝까지 개심을 거부하는 규선의 형상은 일제치하 위만주국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민족의지의 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3) 인규 형상의 의미

소설에서 인규는 주로 학교 설립과 관계되어 묘사되고 있다. 인규는 오해로 연인을 잃은 후 아편중독자가 된 지식인이다. 유창한 영어로 영국인 기술자를 머리숙이게 하고 교사경력이 있는 고급 인테리이나 불쌍한 마을아이들을 위해 고편을 잡아달라는 명우의 부탁에 “인재두 말했지만 성의가문제로세 한때는 불타는 정열에 일신을 희생해서래두 어린 생령들을 위해 힘을 써보려구 했지만 지금은 틀렸네”(도:662)하며 강하게 거절한다.

결으로는 “그런 새끼들을 한달만마터가지구 잇다간 미쳐나겟테그려”, “그런 새끼들을... 꿈에 다시 볼까봐 겁”난다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하나 그의 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일신을 바치려 했는가를 알게 된다.

일죽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바치려고 한때가 잇었다.
그때문 나는 XX중학에서 오라는것을 그냥 뿌리치고 XX소학교에서사년이란 시일을 어린 그녀석들과지나지안헛느냐? 때로 그깁-안 눈들이- 진주알가튼 눈들이

꿈속에서 어른거릴때 나는 얼마나 고달프게 지냈는가? 그속에는 어머니가
업는놈도있다 아버지가 업는놈도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업는놈도 있다 나는 그불상한 녀석들의아버지와
어머니가되어가지고압담한그압길에 하늘에태양은되지못할지언정 침침한 그믐밤
반디불가튼 별쬐은 되어보리라고 결심했다. (도:698)

어린이 교육에 일생을 바치려던 인규의 정열과 꿈은 망국노의 비운과 함께
깨어지고 지금은 아편중독자가 되어 보도소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고향의
학생들을 잊지 못했고 어린이 교육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인규가
교편을 잡아줄 것을 부탁하는 소장과 명우의 부탁을 거절한 것은 위만주국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위만주국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또한
위만주국에서의 교육은 결코 식민지교육으로밖에 될 수 없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인규는 “고원한 이성과 진리에 대하여 말할수업는 동경을 기우려” 보나 다시금
어두운 절망에 떨어지고 영원의 암흑에서 명일을 잃고 지나야 함을 느끼며
바람도 자고 비도 눈도 오지 말고 더구나 태양은 비쳐주지를
마려야한다”(도:697)고 통탄하면서 꿈과 현실의 부조화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타락에 빠진다.

일체를 망각한 그에게는 지위도명예도 지식도 아모런 욕망도업섯다
그저 혼돈된 세계에침전되려는 그욕망밖에업섯다

즉균등(均等)으로 지속되는 만성의 쾌락에서 얻는 무상의질서와 조화를바라는
그것밖에는 업섯다.

얼마나 순화(純化)된 최대한의 정신적자애(精神的慈愛)냐?

그속에는 무한한 자기통제(自己統制)가있다 영원의정서(情緒)가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환원(還元)된 인간의 본성이있고 고난(苦難)에서의 해탈
(解脫)이 있다. ... 그러한 신비의 경역을모르고 이러니저러니하고 시비하는
속세(俗世)의 추잡물들을 생각할 때 인규는새삼스레 이를부드득 깔지안홀수가
업섯다”는 (도:692)

인규의 사색으로 된 위의 말도 상당히 은유적이다. “균등의 쾌락”, “무상의
질서와 조화”, “순화된 최대한의 정신적자애”, “자아통제”와 “영원의 정서”,
“근원적으로 환원된 인간의 본성”, “고난에서의 해탈”에 대한 동경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없는 현실에 대한 부정에 다름 아니다. 작가는 여기서도 인규의 사색을
빌어 은유적으로 현 사회 내지 현 당국에 대한 부정과 불만의 정서를 은연중
드러내고 있다.

소설에는 인규 형상의 표면적 의미는 련애에서 실패하고 타락한 자로서 자기
아이를 임신한 득수 처 때문에 개심하려 한다는 내용이나 심층구조에서는 현
당국에 대한 부정과 불만, 현 당국의 교육에 대한 부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4) 보도소 소장의 이중 배역

「流氓」에서 보도소 소장에 대한 묘사는 위만주국의 관리라는데서 오는
반감이라고 할까 다분히 부정적인 정서를 띠다가 뒤로 가면서 차츰 인간성을

가진 관리로 그려지나 『도라오는 인생』에 오면 처음부터 인자하고 인정이 많은 형상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위만주국의 관리로서가 아니라 인도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로서 타락한 자들을 갱신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보도소장의 인간성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규선이 등이 개심을 거절하는것은 소장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부정, 그리고 위만주국과 일제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표현으로 생각했다고 할 수 있으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을 위해 애쓰는 소장이 불쌍하고 미안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소소장의 형상은 ‘한알의 보리알’에서 가장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대체 사람이란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것인지 나는최근에와서는 각급제길을 일코
암담하게 해매게되는것일세 더구나이젠 고인이되였지만 군의처갓튼 사람의일을
생각하면 인간세상속이란 너머두 허무한것갓타서 도무지 진정을 할 수가
업다네...

얼마나 슬픈 일인가?

군의처뿐만 아니라 그냥 이대루 계속된다면 나두 불원에 그러케 자살을하게 될것
갓다네.

지금 군이 같길을 가야한다지만 대체 군이 같길이 어디 잇단달인가?

한때는 군에게도 같길이 잇섯갓지

그러나 지금은 업네 아무데두 군의같길은 업네 이에서 더 슬픈일이 어디 잇는
가?참말슬픈일이지”(도:647)

이는 아내의 장례 때문에 구류소에서 잠깐 돌아온 규선이가 장례를 마치고 다시 구류소로 돌아가기 위해 보도소에 찾아왔을 때 규선에게 한 보도소장의 말이다. 보도소장은 “그냥 이대루 계속된다면 나두 불원에 그러케 자살을하게 될것갓다”고 하면서 암담한 현실에서 오는 허무의식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락토만주’의 위만주국에 대한 부정에 다름 아니다. “한때는 군에게도 같길이 잇섯갓지그러나 지금은 업네 아무데두 군의같길은 업네 이에서 더 슬픈일이어디잇는가?참말슬픈일이지”(도:647)란 말에는 망국노가 된 지금, 일제의 탄압이 극심한 현재로서는 민족의 앞길이 막막하다는 허무의식일 것이다. 여기서 보도소장은 위만주국 관리로서가 아니라 같은 동포 내지 나라 잃은 망국노의 입장에서 규선이에 대한 동정과 민족의 장래에 대한 허무의식을 토로하고 있다.

보도소 소장은 규선이 처의 자살 사건후 삶 자체에 대하여, 현실과 자신이 하고있는 일에 대한 회의로 고민하다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

여기서 보도소장의 ‘한알의 보리알’의 원리--“부락민의 소생을 위해 나는 한알의 보리알이 돼야 한다. 그리고 훌륭히 썩어야한다.”고 다짐하는 말에는 일제치하 위만주국에서 꾸리는 보도소에서 소장 일을 보는 자신은 친일이라는 혐의를 각오하고 자신을 희생하여서라도 타락된 우리 민족 지식인들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 그의눈압페 의것이 떠올우는것은 해마다봄이면 거룩한태도로 씨를뿌리던 아버지의 그모양이다.

온갖 잡된 괴로움을 다이지버리고 다만 미래의승리를 위하여 씨를 뿌리던 그아버지 얼마나 승업하고 위대한 모양이엇든가...

일시의 괴롭을 못이겨서 잠시나마 허무를 느끼고비애를 늦긴것은 그 얼마나 어리석고도 죄스러운 일이나?

과연 자기는 한알의 보리알이되어 땅에 떠러져서 홀눙히 썩으려했든가?

그리고 씨뿌리는 위대한 농부가 되려고했던가?

(내사업에잇어서는 때는아직도 일은봄이다.

가을의수확을 -미래의승리를 거둘라면 세월은 아직도떨었고 자신의존재는 너무도 미약하다. ...

다시금 재출발을해야한다 부락민의 소생을위해 나는 한알의 보리알이 돼야한다. 그리고 홀눙히 썩어야한다.) (도:648)

소장은 “홀눙히 씨뿌리는 농부는 천천히 잇는정력을 다하고철수를 보낸다음에 야결과를 기다리는것”이란것을 “어렸을때에 아버지나 고향 어른들께서 절실히 느끼며 배운 진리”라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나는 씨뿌리는 사람이되고 한알의 보리알이되어 홀눙히썩으려는것일세”(도:469)고 다짐한다.

여기서 소장의 다짐은 위만주국의 건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표층 의미를 넘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한 자기희생적인 노력이란 이중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다시말해 “국가관리체제를 통해서라도 아편중독에서 벗어나¹¹”게 하겠다는, 겉으로는 체제협력적이지만 내면에서는 우리 민족 지식인들의 갱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보도소소장은 마을의 학령 아이들이 들판의 망아지새끼들 처럼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설립에 발 벗고 나선다.

조사한 결과 8 세가 15 명, 9 세가 17 명, 10 세가 12 명, 11 세가 15 명, 부락의 학령아동이 도합 59 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에 소장은 “타락된 부형들 속에는 홀눙한 지식계급이 만”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말하기에도 참담한 상태에 노혀있다. 이에서 더한 비극이 어디 잇스랴?”고 한탄하며 “성공서와 현공서에 진정이 끌어넘치는 진정서를 보”낸다. 마을에는 빈 단칸도 없어 보도소 사무소를 소장의 집으로 옮기고 보도소 사무소를 임시 교실로 쓰기로 하고 명우에게 교편을 잡을 것을 청하였고 명우는 교사경력에 있는 인규를 추천한다. 여기서 “그 타락한 부모들을 갱생식히는것이 국가적으로부여된 사업이라면 명일의국가의기둥이 될 제2세국민의 교육문제도 엄연히 부여된 사업일것이다”라는 보도소장의 심리묘사는 체제협력적이라고 할수 있으나 보도소 소장의 성격발전이나 플롯의 흐름으로 보아 위의 ‘국가’나 ‘제2세 국민’도 이중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어른들의 문맹퇴치를 위해 야학을 꾸리며 학교 교사가 모자랄 때는 직접 교단에도 오르기도 한다.

「流氓」에서 보도소장과 단장이 피검자들과 치열한 대치 상태에서 충돌한다면 『도라오는 人生』에서는 이들 사이가 조화되고 단합되는 모습으로 변한다. 술자리에서 단장은 전날에 명우의 귀뺨을 쳤던 일을 사과하며 부락민을 감화시켜 나가는 소장의 인격과 덕성에 머리 숙여진다고 감탄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¹¹ 이상경, <‘야만’적 저항과 ‘문명’적 협력>,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출판사, 2004, 85 쪽.

위만주국의 국책에 순응해서가 아니라 보도소장과 단장이 보다 인간적으로 피검자들을 대하고 민족애를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가을에 추수한것을 만척(滿拓)에 절반이나 잡고나니 그남어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봄까지 이어갈수가업”(도: 681)게 되자 소장은 또 여러 방면으로 애써 농한기의 겨울을 리용하여 목재를 운반하는 일을 교섭해서 성공시킨다.

뿐만아니라 다른 마을로 집단이주를 온 우리 민족 이주민들이 생활난으로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서슴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단장 다가튼 동포가 아닌가요? 잘사러도 가치잘살고 못사러도 갖치못사러야 하지만습니까?... 우리들의 본의가 조금이라도 우리동포들의 생활향상에 보탬이 되려구 나선것이라면 인제와서 새삼스레무엇을 주저하며 끄려하겠습니까? 그들의 생활에 피가되고 살점이된다면 단장 나는지금이라도 내몸을 내뱉칠 작정입니다.
(도:703)

여기서 보도소소장은 관리의 입장에서라기보다 같은 동포로서의 동정과 관심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도라오는 人生』에서 보도소 소장은 처음부터 당국의 관리자로서보다 인간애와 민족적 책임감이 있는 인도주의자와 민족주의자로 부각되고 있다. 보도소 소장 일을 하는것도 개인의 이익이나 위만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하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민족의 타락된 지식인들을 개심시켜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도소 소장은 소장이란 관리직을 이용하여 우리 민족의 타락한 인테리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 할 뿐아니라 그들의 생활난을 해결하기 위한 부업·학교설립·새로운 이주민 입주 등 이주지에서의 삶과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다.

자위단 단장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피검거자들에게 폭력까지 쓰는 인간으로 그려졌으나 차츰 민족애와 인간애를 가진 인간으로 그려지고있다.

따라서 「流氓」에서는 보도소 소장과 자위단 단장 대 피검거자들이 치열하게 대치되어 끊임없이 역행하고 반항하는 것으로 플롯이 전개되나 『도라오는 人生』에서는 그러한 대치 관계가 서서히 풀리면서 조화된다. 그것은 보도소장이나 단장이 위만주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생활과 앞날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라는데 모를 박는다고 볼 수 있다.

입주 건으로 현공서에서 온 관리도 마찬가지다. 관리로서가 아니라 동족에 대한 관심이 앞섰다고 할 수 있다.

아마 작가는 보도소장, 단장, 현공서 관리 등에 대한 이러한 묘사를 통하여 위만주국에서 관리직을 맡아 일한다 하여 모두 친일적이거나 친당국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의식을 보여주려는 숨은 뜻이 있는 듯 하다. 같은 도리로 관리를 인간적으로 그렸다고 해서 친당국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3. 심층구조에서 표현된 작가의식—강한 현실비판과 저항 의식

표면 구조에서 보면 이 작품은 명우의 완전 소생, 인규, 득수 처의 개심, 명우와 순녀, 순동이와 복순이의 결혼, 인규와 득수 처의 화해, 명우 어머니 도착, 학교설립, 새로운 이민 입주 등으로 비교적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보여주어 위만주국 체제협력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심층구조에서는 「流氓」보다 일제치하 위만주국에 대한 부정과 불만, 비판과 저항의지, 비록 추상적이고 상징적이고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민족독립의 의지와 민족의식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작가는 일제치하의 위만주국 내지는 보도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이 소설은 우선 아편중독자 등 락오된 자들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꾸렸다는 보도소란 공간을 이용하여 이른바 “왕도낙토”를 부르짖는 위만주국에서 얼마나 많은 아편중독자들을 만들어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소설은 일제치하의 위만주국 내지 보도소는 감옥이며 피검자들은 얼마나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폭로하고 있다. 지금 찾아볼 수 있는 『도라오는 人生』의 텍스트 중 첨가된 부분만 보아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시장철 감방안은

떡장갓치 어둡다.

자나깨나 살창박겐

사자눈이 엇보네

도망질은 안한다

도망질은 안한다

도망질은 하구퍼도

쇠사슬이 듯잔네 (도:마음의 琴線, 621)

“왕도낙토”를 부르짖는 일제치하 위만주국의 허구성은 자위단 단장한테 귀뺨을 얻어맞고 분노한 명우의 말에서도, “현실은 너머도어둡다 나는 까딱하면 질식할것갓타 견딜수가업다 내눈압페는 어둠의거리를흘러가는 장렬(葬列)박게 안보인다”(규선, 도:619), “이놈에 세상 한번 벌컥 뒤짚어지는 법은 없나”(도:618)고 절규하는 규선의 말에서도, “이러니저러니하고 시비하는 속세(俗世)의 추잡물들을 생각할 때... 새삼스레 이를부드득 같지안흘수가 업섯다”(도:692)는 인규의 말에서, “그냥 이대루 계속된다면 나두 불원에 그러케 자살을하게 될것갓다네.”(도:647)하고 절망하는 보도소 소장의 말에서, 그리고 작품의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음, 소설은 일제치하 위만주국은 “아편금연”이란 미명아래 보도소를 꾸려 피검자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통치와 착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그들의 생존상황이나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마을의 거주환경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지만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마을의 학령 아이들이 59 명이나 되지만 성공서나 현공서에서는 아무런 중시도 돌리지 않아 결국 보도소 소장이 진정서를 내며 열심히 설득하여 겨우 학교를 세우게 된다. 정식으로 개교를 선언하는 날 “소장은 보도소 강당에서 래빈도업는 입학식을 성대히 열고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주연도 베풀었다 얼그은이 취한 술기운에 모도다 소장의 거사를 찬양하는것이엇지만 그러나장내의 분위기는 말할수업시쓸쓸했다”(도:669)고 서술하고 있다. 성공서나 현공서에서

아무런 중시도 지지도 하지 않고 개교식에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현당국에 대한 비판이 내포되어 있다.

학교가 차츰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고 “소장이 성공서와 현공서에 맹렬하게 운동을 개시”한 보람으로 성과 현에서 수차 시찰을 나왔고 정세는 여러 방향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어 나간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또한 역으로 학교설립에 성공서와 현공서, 즉 위만주국 당국이 지지 해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지한다는 말이 된다. 위만주국 당국은 피검거자들을 가두어 두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노동력만 착취할 뿐 마을의 생존환경이나 아이들의 교육에는 전연 관심이 없었다는 비판이 숨어 있다.

소설은 또한 일년 농사를 짓고도 량식이 모자라 보도소 소장이 부업거리를 얻어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엮고 있다. 이 역시 위만주국의 경제적 수탈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 할 수 있다.

팔월을 잡자 며칠안되어 부락에서는 만척(滿拓)의 제오회째의 대부배급(貸付配給)을 받게되었다.... 부락민들은 모도다내켜하지않는 얼굴로 배방된 쌀을 둘러메고제집식 각각 흐터저가서는위선 압프로의 예산부터세워보는것이다

어떻게해서던지 이번것을 가지고신곡 날때까지 견디어나가야 할텐데아무리 손가락을 꼽아가며 날스자와 되스수를 따져보아야 어렵도없는 일이다.

그래 마지막에는 손구락을뽑아보다가 못해그만역정스레 쌀푸대에다 침을탁 뱉고는 “제-길 이러구 살아선무얼하는거야”하며 보낼곳업는 울분에저혼자 씩은 거리는것이였다. (도:628)

九월하순이면 마을의 추수는 죄다 꺾는다.

집집마다 마당안에는 나락들이 듬직하니 가려져있고 보도소앞 넓은마당에는 공동농장 나락들이 중천에 다올지경 어마어마하게 짹 들어차있다(도:650)

가을에 추수한것을 만척(滿拓)에 절반이나 갇고나니 그남어지를 가지고는도저히 봄까지 이어갈수가업다(도:681)

위의 모순되는 서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을이면 집집의 마당안과 보도소 앞 넓은 광장에는 벼가 중천에 닿을 지경으로 짹 들어차 있으나 만척의 착취로 피검자들과 농민들은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이고있다. 결국 당국은 피검자들을 가두어 놓고 외계(항일빨찌산)와의 연계를 단절시키고 그들을 손쉽게 통제하며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이른바 보도소를 꾸리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또한 일제의 집단이주정책에 의한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참담한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移民”의 2절과 3절은 탈락되었고 1, 4, 5 절만 읽을수 있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새로운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엮고있다. 물론 그들의 입주는 현 당국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일부 체제선전의 성격을 띤다고 할수 있으나 그런 표면화된 이야기 뒤에는 오히려 일제에 의해 집단 이주한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비참한 생존상황을 리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해마다 그들의참담한 정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눈을 뜨고 참아볼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작년에는 더구나 그들의 고향도청에서 시찰을따라왔는데 그 시찰원으로 온 늙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도라갈때는 우리들은 참말 무어라고 변명할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치 안겠습니까? 조곰이라두 좀더 잘살게 하려구 보낸 그이민들이 그러한 참경에서허덕이는거을 보았을 때 관계당국자라는 입장에서보다도 가튼 고향사람의처지로서 볼때어찌 눈물이 나지안겠습니까?”(도:702)

현 관리의 위의 말은 일체에 의해 집단이주를 온 이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참담했는가를 이해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당국의 주도에 의해 추진된 입주라고 밝히고 있으나 오히려 “관계 당국자라는 입장에서보다 같은 고향사람의 처지에서” 나섰다고 보는것이 옳을 것 같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설의 후편이 학교설립, 명우 어머니의 만주행, 명우와 순녀, 순동이와 복순이의 결혼, 새로운 이주민의 입주, 인규와 득수처의 화해 등으로 “상당히 밝고 긍정적인 묘사로 일관되며 또 새로운 희망마저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얼마후 소장은 다시금들에 나타났다 거기에는 명우며 규선이도 있다 그리고 순동이 순녀 복순이 그밖에도 여러사람들이 한곳에 모여서서 희열과 희망에 빛나는 눈으로 풀은 하늘을 흘러가는 흰구름을 어느때까지던지 바라 보고 있다.

이는 소설의 결말이다. 밝은 색채와 명랑한 분위기라 할수 있다. 이러한 결말은 위만주국의 금연운동 내지 국책이 잘 진척되고있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작품의 심층구조에서 보여지는 현실비판 의식과 민족의식 등 진보적인 사상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와 배치는 일체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가 『마음의 금선』의 序에서 “맞침 再昨年 滿洲國政府 禁煙總局의委託을 받고 오랫동안 이 宿願이든 愿을 비로소 滿洲日報紙上을 通하여 풀게된것이다.”라고 밝히 듯이 이 소설은 위만주국 아편총국의 위탁을 받고 쓴 작품이다. 때문에 표면구조에서 현실을 찬양하는 말이라든가 밝음을 보여주는 일부 구조는 검열을 통과하는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의 진의는 보도소를 방패막으로 삼고 위만주당국의 허구성을 비판하자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설립, 명우 어머니의 만주행, 명우와 순녀, 순동이와 복순이의 결혼, 새로운 이주민의 입주 등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뿌리 박고 살아간다는 정착의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선구시대』에서 만주에의 이주, 정착사를 다룬 작가는 이에서도 이주민의 출로문제에 관심을 보이고있다. 결말의 밝은 색채와 명랑한 분위기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소설 전편이 끊임없이 잃어진 과거에 대한 동경과 추억, 고향에 대한 애절한 향수, 질식할것 같고 미쳐버릴 것만 같은, “어둠의 거리를 흘러가는 葬列밖에 안보이는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우리 민족

인테리들의 타락의 주객관적 원인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 내지 나아갈 길에 대한 탐구 등으로 더욱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장선에 의하면 1943년 5월 4일 위만 수도 경찰부 총감 미다 마사오(三田正夫)가 경무총국장 야마다 도시스께(山田俊)에게 바친 비밀서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강덕 6년 25일의 치안경찰 특비발(特秘發) 제 545 명령에 좇아 경찰활동을 진행한 이래 관내대상에 대하여 측면으로 경찰을 진행하였다. . . . 만주좌익문학(滿洲左翼文學)은 탄생한 날부터 이미 정치상의 형세에 주의하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형식으로 창작하였기에 이런 문학에 대한 인식이 결핍한 타민족에게 있어서 그 중심사상을 장악하자면 참으로 힘든 일이다. 특히 대동아전쟁이 폭발한 후 정부의 반만 항일운동(反滿抗日運動)에 대한 검거, 진압조치는날로 좌익작가들의 주의(警覺性)를 불러일으켜 그들은 보다 추상화되고 애매한 방법을 쓰고있다. . . . 그들은 이론적인 술어를 사용하지 않고 만주문화인의 정감을 내포한 용어를 전문 사용하여 심사인원을 열려 넘긴다. . . . 또한 표면상 정부를 옹호하는척하면서 정부를 반대하는 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¹²

현경준의 『도라오는 人生』이야말로 “표면상 정부를 옹호하는 척하면서 정부를 반대하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훌륭히 했다고 본다.

3. 맺음말

『도라오는 人生』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수정 또는 첨가된 부분은 흔히 민족적, 진보적인 의식과 현 당국에 대한 불만, 부정, 저항의지를 보여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둘째, 『도라오는 人生』에서 보도소 소장은 위만주국의 국책을 집행하고 선전하는 관리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민족을 위해 헌신하려는 인도주의자와 민족주의자로 그려지고 있다.

셋째, 『도라오는 人生』은 「流氓」에서는 위만주국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하며 우리 민족 지식인들의 고민과 방황과 갈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적극적인 삶의 자세--“그 어리석었던 피동적시대를 게을르게 회상하며 자아를 망각하고” 살지 말고 “일허진 세월을 다시금 차져야하며” “일생을 맞쳐서라도 있는힘을 죄다 써붙”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만주”에의 이주와 정착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도 보인다.

실로 우리는 현경준의 “아편금연” 소재 작품들을 통하여 일제치하 위만국의 허구성을 여러 면을 통하여 알게 된다. 이른바 “왕도락토”를 내세우는 위만주국은 수만은 아편중독자들을 만들어 내었고 이른바 타락한 자들을 개조시키기 위해 꾸린 보도소는 외부와의 연계를 막고 그들을 통제하여 위만주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¹² 《首都警察廳特秘發第一四一號》，《長春文史資料》，1989년 제2집, 233~235쪽.

수단이란 것 등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잃어버린 과거에만 침전되어 있는 타락자 또는 성격파탄자들에게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아야 한다는 충고를 하고 있다.

때문에 “幸으로 이 한편이 그들의생활에 얼마만큼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滿洲國政府의 眞意의 一片이나마 엿보게 할 수가 있다면 作者의 訴願은 이에서 끊진다.”는 고백도 이중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